

노관규 순천시장 “투자유치 목표액 1조원 달성 주력”

우주·에너지·신소재 등 기업현장 방문 소통 행보 인센티브 조례 개편...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노관규 순천시장이 우주, 에너지, 신소재 등 순천 신산업을 이끌어갈 기업현장을 점검하며 소통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17일 순천시에 따르면 노관규 시장은 지난 14일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해 울촌산단 일원을 찾았다.

지난해 6월 투자액 175억원, 고용인원 100명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인투알을 방문해 재생에너지 분야 비전을

공유하는 등 상호 협력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

㈜인투알은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는 물론 미국, 일본 등 해외 시장까지 접수한 차세대 ESS에너지 선두 기업으로 타 지역 공장을 이전 증설하는 등 순천 공장을 확대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화에너지로스페이스, 롯데케미칼 설립 예정 부지 점검도 이뤄졌다. 지난 2월 Space Hub 발사체 제작센터 착공식을



통해 우주 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발돋움한 순천시는 해당 부지를 방문해 추진 사항을 점검했다. 오는 2025년 1월 준공 예정인 국내 유일

일 민간 우주 발사체 단조립장은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함께 남해안 우주시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롯데케미칼은 국내 5개 공장, 해외 26개 생산기지를 둔 연매출 12조원 이상의 대표 석유화학 기업으로 순천시와 500억원 규모, 500명 고용 창출의 투자협약을 맺고 울촌산단 입주를 위한 행정 절차를 추진해 왔다.

오는 4월 기준 여수 공장 첨단소재 공장을 이전에 착공을 준비 중으로 앞으로 순천시 이차전지·신소재 산업의 미래를 이끌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전남테크노파크와 마그네슘 생산동을 둘러보고 마그네슘 합금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세 및 경량소재 산업적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과 마그네슘 생산동의 활성화와 핵심 기업 발굴 지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

노관규 시장은 “기업이 순천에 자리 잡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해 기업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인센티브 조례 개편을 통해 기업들이 더 나아진 순천의 투자 환경에서 성공토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 시장은 “순천의 5대 핵심사업인 바이오, 우주, 웰니스, 호텔, 신소재 등에서 올해 투자 유치 목표액인 1조원 달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정기기자



화엄사 흥매화 ‘활짝’ 최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화엄사 흥매화가 50% 개화했다. 지난 14일 전국 각지에서 화엄사를 찾은 많은 인파가 지리산의 진기한 흥매화를 즐기고 있다. <구례군 제공>

진명숙 여수시의원 “역사적 상징 ‘장군도’ 뱃길 복원해야”

철부선 업체 폐업 이후 섬 방치 행정 실태 지적

여수시의회 진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사진)은 17일 “지난 15일 제 25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여수시의 역사·문화의 상징인 장군도 뱃길을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따르면 여수시 남산동에 위치한 장군도는 1947년 전라좌수영 수사로 부임한 이랑 장군이 왜적을 막았던 국내 유일의 수중 석성이 있어 역사적 가치가 뛰어나다.

지난 2015년까지 철부선이 마을 선착장까지 운항, 시민들과 관광객의 접근이 활발했으나, 철부선 업체의 폐업으로 접근이 어렵게 되자 섬은 각종 쓰레

기 더미, 가마우지 떼가 점령하며 방치되고 있다.

진 의원은 “여수시는 365개의 섬을 지니고 있는 ‘섬이 경쟁력인 도시’라며 ‘섬 박람회 개최·섬 발전을 위한 주무 부서들이 존재하는 와중에 장군도를 방치하는 것은 아이러니한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장군도 뱃길 복원이 여수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이며, 섬의 옛 명성을 되찾기위해 노력해야한다”며 “아담하고 예쁜 산책길을 조성하고, 시의 이미지를 향상시킨 상징물을 곳곳에 설치해 테마가 있는 섬으로 조성하면



많은 이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여수밤바다 낭만에 더해 또 하나의 볼거리와 쉼공간을 시민·관광객에게 제공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진 의원은 “여수시 중앙동을 비롯한 원도심권 주민들이 장군도 복원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의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장군도가 더 이상 황폐화 되지 않도록 재정비하고, 뱃길 복원에도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수=김진선기자

화순군,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역대 평가 최고 성적 달성

화순군은 17일 ‘2023년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군 역대 평가 중 최고 성적을 달성,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0년부터 시작해 올해 4회를 맞은 이번 평가는 5대 항목에서 18개 정성·정량 지표를 평가

해 상위 30%에 속하는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군은 지난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2회 선발, 상여금(인센티브)을 부여했고, 특별 승급을 통해 소속 직원의 적극 행정을 독려했다.

또한 적극행정을 수행 중인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마련해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섰다.

군은 앞선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모든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적극행정에 대한 ‘기관장의 추진 의지’도 긍정적인 평가에 힘을 실었다.

화순군 관계자는 “적극행정에 임하는 공무원에게 실질적 보상과 보호장치가 마련되면서 업무능력이 크게 향상됐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독려할 다양한 제도를 운영·발굴해 적극행정 문화 정착과 우수기관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순=이병철기자

장성군, ‘청년 월세 지원’...최대 20만원

2촌 이내 소유 주택·공공임대주택 임차 청년 제외

장성군은 17일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청양통장에 가입한 19-34세 청년으로 ▲부모와 세대 분리된 무주택자 ▲임차보증금 5천만원·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중인 군민이다.

단, 주택소유자의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가 소유한 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임차한 청년은 제외한다. 소득·재산 요건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2천2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족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천만원 이하이며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장성=김문태기자

‘2030 고흥 인구 10만 달성’ 인센티브 추진

유치 실적 따라 최소 150만원·최대 1천만원 지급

고흥군이 2030 고흥 인구 10만 달성을 위해 민간 주도의 ‘전입자 유치 유공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7일 고흥군에 따르면 ‘전입자 유치 유공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고흥 주민(출향인) 등이 주체가 돼 인구를 유입하고, 군에서 유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율적 인구 늘리기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 능동적 참여 유도를 꾀하는 민관협력 프로젝트다.

고흥군은 그간 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 행정 주도의 인구 유입 정책에 서태피해 민관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함을 인식하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선거법

검토, 법적 근거 마련 등 제반 절차를 마쳤으며, 3월 말 조례 공포 과정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지급 기준은 고흥 주민이나 출향인 이타 지자체에서 고흥군으로 5명 이상을 전입시키고, 전입자가 1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지급 규모는 ▲5-9명 유치 최소 150만원·최대 200만원 ▲10-19명 유치 최소 350만원·최대 710만원 ▲20명 이상 유치 최소 800만원·최대 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밖의 신청방법, 지급 절차 등 구체적

인 사항은 4월 초 고흥군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게시할 예정이다.

공영민 군수는 “2030 고흥 인구 1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군민과 출향인 공직자의 노력, 모두의 열정을 함께 모아야 한다”며 “민간에서 인구 유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2023년 농식품부 귀농귀촌유치지원사업 성과평가 전국 1위 ▲2023년 전남도 귀농어귀촌 종합평가 1위 ▲‘2024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귀농귀촌도시 부문 6년 연속 수상 등 명실상부 대한민국 귀농어귀촌 1번지로서 위상을 굳건히 다져가고 있다. /고흥=최봉환기자

이병노 담양군수, 지역발전 견인 위한 광폭 행보

조계사 농특산물 특판전 방문 국제명상센터 건립 지원 당부

이병노 담양군수의 연이은 광폭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17일 담양군에 따르면 농특산물 판로 확대 및 소비자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특산물담양농특산물 특판전’이 최근 서울 조계사에서 3일간 열렸다. <사진>

특판전은 초하룻날 사찰에 많은 신도가 방문하는 것에 착안한 이병노 군수의 제안·조계종 총무원의 화답으로 성사돼 지난해부터 분기별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 행사로 이병노 군수는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직접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시식진행과한과 등 특산품을 소개했다.

또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의 면담에서 이 군수는 담양에 건립을 추진 중인 국제명상센터와 관련 건촉 디



자인·가람배치 등 설계단계를 조계종과 협의하고 조계종 중대 차원의 지원을 요구했다.

특히 행사 전날 상경한 이 군수는 재경 담양·장성·함평·영광 향우회장단과 만남을 통해 고흥사랑기부금에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중부권 최대 관광단지인 충북 증평군 에듀팜 특구를 방문해 증평군청 및 업체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사업추진 성과를 듣고 시설물을 견학, 담양군과의 협업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이병노 군수는 “담양의 발전을 위해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직접 뛰는 현장형 군수가 되는 것”이라며 “관광, 농업, 투자유치, 수출 등 전 영역에 걸쳐 직접 뛰어 성과를 이끌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담양=정승균기자

장흥, 정남진 해안도로 무궁화 꽃길 조성

평화통일 기원 제79회 식목행사 군민 등 200여명 참석 무궁화 식재

장흥군은 “최근 정남진 통일전망대에서 ‘평화통일 기원 제79회 식목행사’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

행사는 김성 군수를 비롯해 군의회 의원, 사회단체 임직원, 군민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평화통일일을 염원하는 상징적 공간 조성’을 주제로 무궁화 132주를 식재했다.

군은 올해 사업비 19억원을 투입해 무궁화를 포함한 15종 8만그루, 25ha



규모의 조림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나무심기를 통해 2060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지역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를 높일 방침이다.

김성 군수는 “무궁화가 피어난 곳마다

다 평화의 싹이 트고, 통일의 꿈이 피어나 나길 기대한다”며 “이번 무궁화 심기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노홍록기자